

거창국제연극제의 경제효과 분석 연구

이종원*, 박정배**

세종대학교 공연예술매니지먼트학과 교수*, 청운대학교 공연기획경영학과 교수**

Research on the Economic Impact and the Improvement the Keochang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

Jong-Won Lee*, Jeong-Bae Park**

Graduate School of Interdisciplinary Arts, SeJong University*

Dept of Performing Arts Planning & Management, ChungWoon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거창국제연극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방문객이 인식하는 거창국제연극제의 만족도와 기여정도에 대해 조사하고 지출비용을 분석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전문가 심층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거창국제연극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관람객 인식조사결과 거창국제연극제가 지역발전과 공연예술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거창을 예술의 도시로 이미지화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대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들은 축제와 공연작품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숙박, 교통, 서비스 품질 등에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접효과는 128,000천 원, 간접효과는 생산 160억 3천8백만 원, 소득 3억 1천9백만 원, 부가가치 75억 4천9백만 원, 수입 19억 2천6백만 원, 조세 7억8천만 원 등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 거창국제연극제, 방문객 인식, 방문객 만족도, 지출비용, 경제적 파급효과

Abstract This research was about the economic impact and the development plan by analyzing satisfaction and the contributions of Keochang International Festival(KIFT) that visitors recognize. It also sought ways to the development of an KIFT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According to the survey of visitors' recognition, KIFT contributed to the regional and the arts development. And it also showed that people recognize the contribution to imaging Keochang as the city of art. In regard to the visitors' satisfaction, they were satisfied generally with the festival and performance, but the satisfaction level was quite low with the traffic, service quality, etc. In respect to the economic impacts, the direct cost effect caused by holding the theater festival was 128,000 thousand won in 2013. Also the annual economic(indirect) impact on the production was 16 billion won, personal income 319,358 thousand won, added-value 7,549,540 thousand won, and taxes 780,733 thousand won.

Key Word : KIFT, visitor's recognition, visitor's satisfaction, expenditure, economic effects

* 본 논문은 2013년 KIFT 및 ICDPM의 발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되었음.

Received 20 February 2014 Revised 18 March 2014

Accepted 20 April 2014

Corresponding Author: Jeong-bae, Park(ChungWoon University)

Email: pjb@chungwoon.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90년대 중반 이후 지역축제가 활성화되면서 2012년도에 공공기금 지원 예술축제는 43개가 개최[1]되었다.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축제의 경우 평가를 거쳐 지원 금액 조정이나 지원이 아예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중앙 정부나 공공기금을 지원받는 경우 지방정부와 매칭형식으로 지원되므로 수혜측은 구체적인 축제성과 제시를 요구받고 있으며 성과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 공공지원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축제 주관측은 관람객 만족도, 축제에 대한 인식, 관람자 수, 지역에 대한 경제적 효과 등에 구체적인 측정과 조사 및 분석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분석결과는 지역축제 지원에 대한 공공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운영재원을 조성하는데 이해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특히 지역의 예술축제 운영은 공공기금이나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받는 공공재원의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금 등의 지원 없이는 축제를 개최할 수 없는 열악한 재정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2]. 따라서 축제를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성화된 전략으로 타 축제와 의 차별성·지역에 대한 브랜드 가치제고, ·예술창작·예술향수 및 참여 기회의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함으로써 BI(Brand Identity)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에서의 예술발전과 지역민들의 예술향유확대를 목적으로 25년째 개최해 오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예술축제의 하나인 ‘거창국제연극제’ 방문객들의 인식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구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연구

2.1 지역예술축제 개념과 현황

지역축제는 축제의 기원이나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는데 문화체육부는 축제를 개최 목적에 따라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관광축제, 농림·축산업·어업 등의 발전을 위한 산업축제, 환경보호·역사적 인물이나 사실을 추모하거나 재현하는 특수목적 축제, 지역주민의 날 등에 개최하는 주민화

합축제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축제의 유형을 크게 문화예술축제, 전통문화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지역관광축제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3]하거나, 목적과 유형에 따라 분류[4]하는 경향이 강하다.

축제의 목적에 따라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는 하지만 지역예술축제는 거주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을 수월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고,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확대하는 역할과 함께 거주민의 자긍심을 높여줌으로써 삶의 질을 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축제의 결과가 지역주민에게 예술향수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확장시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게 되면서 축제는 빠른 속도로 양적팽창을 이루었다. 우리나라 축제는 ‘80년대 중반까지 50여개에 불과하던 것이 ’08년도에는 926개로 양적인 정점을 지나 ’12년도에는 758개로 나타나 양적팽창 후에 보이는 조정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 중 2012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예술행사는 총 43개로 예술행사 34개, 지자체공연예술성화 9개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공연유형이 32개(74%), 경연유형이 11개였으며, 국제행사 21개(49%), 국내행사가 22개로 분류되었다[2].

2.2 거창국제연극제 현황

‘거창국제연극제’는 경남 거창군 지역에서 1989년 시월연극제로 시작하여 1998년 제10회 때부터 거창군 위원면 수송대 계곡 일원의 야외극장에 개최하였고 2013년도 25주년째 축제를 이어오고 있다. 야외극장은 축제기간 중에 임시로 가설하여 운영하며 2013년도에는 축제극장 80석을 비롯하여 가설극장 6개 등 총 7개 공연장 3,300석의 공연시설을 운영하였다. 개최 시기는 초기에는 10월~12월에 개최하다가 제10회 이후 7월 하순~8월 초순 2주 내외기간 동안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참여 예술단체 수는 ‘89년도 개최당시에는 국내 5개 단체였고, ’98년 제 10회 때는 국내 9단체, 해외4단체 등 13개 단체였으며, 2008년 20주년을 맞아 해외 10개 단체, 국내 37개 단체 등 총 47개 단체가 참여함으로써 국제연극제의 규모와 내용을 갖추게 되었다. 최근 3년간 참여 예술단체 수는 다음 표와 같다.

<Table 1> Submitted Works

Year	Theater	Music	Non-verbal Performance	Dance Performance	Musical Drama	Magical Show	Other	Total
2013	22	8	4	3	3	3	3	46
2012	28	3	5	4	2	2	3	47
2011	18	3	-	-	2	1	17	41

연극축제 프로그램은 국내·외 초청작품 공연, 해외 기획초청작품 공연, 국내 경연초청작품 공연, 플래시 공연 및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2013년도(제25회) 현황을 보면 국내 공식초청 21개 작품, 국내경연 15개 작품, 해외초청 6개 작품, 해외기획 4개 작품 등 총 46개 작품이 축제에 참여하였으며 경연참가작 단채상 3건, 개인상 3건, 세계초연을 위한 희곡상 1편, 거창 Award 2편 등을 시상하였다.

‘거창국제연극제’는 2012년도부터 공연 횟수가 200회를 넘고 관람객수도 20만 명을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 무료 관객이 85%를 초과하여 유료 관람률이 매우 낮는데 이러한 현상은 연극제 개최지 주변이 휴양지에 위치하고 있어 방문객 전체를 관람객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관람객 총수는 휴양지인 수송대 계곡 입장객수 전체를 방문객으로 하며 입장 시에 지불하는 요금으로 총수를 산출하였다.

축제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도비, 군비 등 대부분이 공공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1년도까지는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되었으나 ‘거창국제연극제’가 관광축제로 분류되면서 2012년도부터는 관광기금으로 지원되

고 있으며 지원금액도 1.5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크게 증액되었다. <Table 3>과 같이 2013년도 총사업비는 2000년도에 비하여 100%증가하였고, 보조금은 약 3.8배 증액되었으나 사업수입(입장수입 등 자체수입액)은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총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보조금의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총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보조금의 비율이 2000년도에는 절반수준인 49.6%였으나, 2013년도에는 88%로 사업비의 대부분을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문화예술의 경제효과분석 개념

2.3.1. 문화예술의 경제효과방법론

문화예술에 관한 경제적 효과연구의 역사는 매우 짧다. 문화예술은 그 자체가 가지는 다양한 특성과 고유한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일반 재화와 다르고, 비경제적인 부분인 향수자의 정서, 감정, 행복, 교육, 지역간의 교류 등에 대한 파급효과도 크므로 Baumol & Bowen(1966)[8] 54(9-23)의 정의한 바와 같이 그 효과를 계량화 하는 연구가 용이하지 않은 점도 있다. 그러나 예술행사나 축제에 공공재원이 투입되고 그 성과를 제시해야 하는 당위성이 점점 크게 대두되면서 2000년대 들어 지역축제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는 Vaughan (1980)[6]; 이홍재·최승업(1995); 고숙희(2001), 임상오(2010); 김영, 이상영 외(2004); 박승준·조승국·유승훈(2002); 이종원(2010) 등의 연구가 있다.

예술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경제효과분석은 예술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직·간접의 경제적 효과분

<Table 2> number of Performances and Visitors

Year	Number of Visitors			Seat Share(%)		Number of Performances	Festival Period (days)
	Fee-based	Free	Total	Rate of Fee-based	Rate of Free		
2013	25,260	161,750	187,010	13.5	86.5	200	17
2012	30,579	175,341	205,920	14.8	85.2	201	17
2011	25,478	98,809	124,287	20.5	79.5	145	16

<Table 3> Total Budget & The Rate of Financial Resources

Year	Total Budget①	Subsidy②	Revenue③	Rate of Subsidy (②/①)	Rate of Revenue (③/①)
2013	1,074,559	946,559	128,000	88.09%	11.92
2010	927,647	800,000	127,647	86.24%	13.76%
2005	687,350	420,000	267,350	61.11%	38.90%
2000	498,002	247,000	251,002	49.60%	50.41%

석과, 예술 활동이 시장에서 파악되지 않는 외부효과인 예술 활동의 효과로 유산, 교육, 위신가치 등 후생적인 부분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경제효과 분석에서 직접효과는 예술 활동에 투입된 비용과 입장객에 의해 발생한 입장수입, 기타 축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업수입 등을 분석하는 것이며, 간접효과는 생산, 수입, 부가가치, 고용, 조세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문화경제학자들은 예술 활동에 의해 창출되는 직간접의 경제효과 외에 창출되는 편익을 연구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지불의사분석(Willingness to pay)' 방법을 활용한다. 예술 활동에 의해 직접적으로 창출되는 경제효과는 투입비용을 상회하지 못하므로 예술향유자나 사회전반에 미치는 외부효과를 연구함으로써 공공재원의 투여가 정당성을 갖도록 하는데 유익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불의사분석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연구방법은 조건부 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이 활용되고 있다. 조건부가치추정(CVM)은 예술의 영향, 효과, 반응, 그리고 예술을 소비하는 데 대한 지불의사 금액 등을 추출해냄으로써 예술행사의 외부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따라서 예술향유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와 분석을 통해 그들이 예술행사에 갖는 인식과 지불의사 금액을 도출해야 한다. 조건부가치추정법에 대하여 '공공재, 가치제 등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상적 상황을 설정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공공재의 질적(보존, 개선, 활성화 등) 변화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재화의 한계편익을 도출하는 것[8]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임상오(2010)는 CVM에 대하여 경제학적 가치개념에 부합하는 후생을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상당부분의 연구절차가 표준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9]고 주장하고 있다. 조건부가치추정의 분석방법은 측정대상 재화의 선정, 응답자가 예술행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 시나리오 작성, 구조화된 설문지 작성, 설문 실시, 응답지를 통해 목적인 정보의 분석에 의해 이루어진다.

2.3.2 산업연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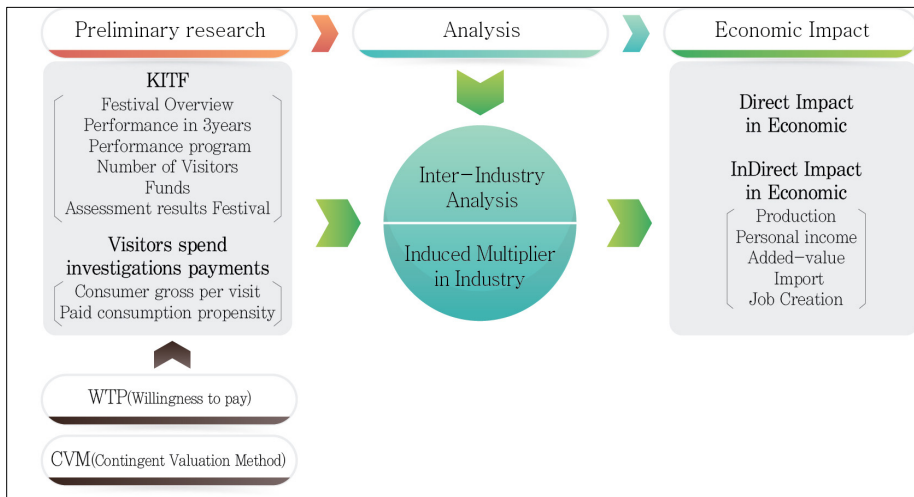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가 경제에서 보통은 1년 단위의

일정기간 동안 각 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해 상호간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행렬식으로 기록한 통계표를 산업연관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 또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IO분석)은 산업간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였다.[10] 산업연관분석은 산업간 상호의존 관계를 이와 관련된 경제의 움직임을 산업 간의 생산 기술적 연결구조에 초점을 두고 규명하는 분석방법으로 구조적 측면에서 산업간 생산물 순환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최종수요가 유발하는 생산, 고용, 부가가치 등 각종의 파급효과를 산업부문별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 등의 분야에서 활동결과의 측정에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문화예술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활성화 방안(2006)'에서 산업연관분석의 개념을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행렬형식으로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이며, 이러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가 각 산업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의 활동에 미치는 직·간접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연관분석은 외생화 방법을 이용하여 특정산업의 산출물이 미치는 영향과 타 산업을 유발시키는 효과를 측정하여 투입계수, 생산유발계수, 소득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등을 구할 수 있다.

산출물 유발계수를 근거로 예술행사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생산유발계수가 1.72라면 1억 원의 최종수요가 발생할 때 1.72억 원의 생산파급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8] 이는 최종수요에 해당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을 위해 사용할 유발계수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은행의 산업연관 통계자료(2003)를 활용하여 산업연관분석 문화산업분야-공연예술 항목의 유발계수 [11]를 분석하였다.



[Fig. 1] Economic effect analysis model

3. 실증연구

3.1 조사 설계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거창국제연극제 방문객들의 축제에 대한 인식과 축제가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조건부 가치추정법(CVM)을 참고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구성하고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거창국제연극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예술관련 정책·기획 및 예술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연극제의 정체성은 물론 경제효과를 분석하여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Fig. 1>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먼저 설문지는 축제방문객에 대한 일반 사항, 만족도, 지불의사, 응답자 특성 등으로 구성하여 축제의 외부효과를 조사하고, 지불의사에 대한 응답내용으로 방문자별 지출액을 도출하여 총 방문객 수와 지출액에 해당하는 부문별 유발계수를 곱하여 파급효과를 산출하였다. 축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추정하는데 직접효과는 투입재원에 대한 총 산출로 한다. 간접효과는 방문객 1인 평균소비 지출액을 총 방문객수와 관련 승수인 유발계수를 곱하여 생산, 소득, 부가가치, 수입, 조세수입 효과 및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발한 방문객 만족도조사, 예술축제 선행연구 설문지 등을 참고로 본 연구 목적에 맞도록 수정 또는 설문문항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이전 년도와 비교분석을 위해 설문 문항을 전년도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2013년도 설문지에는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문항을 추가하였다. 설문문항은 6개 분류에 총 29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명목척도, 리커트 5점 척도, 개방형 등 문항의 내용에 따라 달리 하였으며, 설문지 구성은 일반사항으로 거창국제연극제 방문횟수·목적·관심장르·정보의 경로 등을 질문하고, 연극축제에 대한 만족도·재방문 의사·개선사항과 지불의사 및 응답자 특성 등으로 구성하여 축제의 외부효과를 조사 분석한다. 지불의사에 대한 응답내용을 분석하고 방문자 개인별 소비 지출액을 도출하여 간접파급효과분석의 모수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은 2013거창국제연극제로 행사 기간인 13.7.26-8.11동안 참여한 25만 명 중, 500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는 설문과 면접조사 그리고 집합조사를 2회 실시하였다.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3.2 실증 분석

본 연구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거창국제연극제 관련 사항에 대한 빈도·백분율·평균·표준편차를 기술통계 방법으로 500명의 표본 집단으로부터 회수된 327부 중 유효한 281부를

<Table 4> Preferred Works of Audience

Year	premiere works	play	musical	overseas works	contest works	often air theater	Other	Total
2013	13.5%	27.4%	33.1%	5.7%	3.6%	16.7%	-	100.0%
2012	6.5%	11.9%	37.1%	11.6%	1.4%	15.0%	16.5%	100.0%
2011	8.2%	20.4%	35.1%	10.6%	3.3%	17.4%	4.9%	100.0%

<Table 5> Visitor's Cognition About the Contribution of the Keochang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er

Year	Great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performing arts	New works of art, artist, artists contributing to the excavation	County residents, including tremendously contributed to the art of perfume	Imaged region as the city of art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remendously contributes to the local economy
2013	4.11	3.94	3.96	4.04	4.04
2012	3.97	3.70	3.82	4.0	3.89
2011	4.05	3.88	3.98	4.08	4.08

SPSS 21 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방문객의 인식 차이정도를 알기위하여 빈도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남녀 성비는 비슷한 수준(49.1:50.9)을 보였다. 연령에 있어서는 40대가 26%로 가장 많고 학력은 대졸이상이 75%, 소득수준은 300만원~500만원이 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문객들의 거주지는 경남이 30%로 가장 많고 경남·북(대구, 부산 포함) 거주자가 70%에 이르며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방문한 비율은 23%수준으로 나타났다. 거창국제연극제 방문 횟수에 있어서는 처음 방문했다는 응답이 47.5%로 과반수 가까이 되었고, 2회째가 26.6%, 3회째가 10.8%로 나타났다. 처음 방문은 전년도 49%와 큰 변동 없이 신규 방문객이 창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회째 이상은 10.1%로 전년도 22.8%였던 것이 비하면 절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회째가 전년도 13.3%에서 금년도 26.6%로 크게 증가하여 재방문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축제를 즐기며 공연관람을 위한 방문이 높게 나타났고, 학력이 낮을수록 가족과 휴가를 보내기 위해 방문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p<.05). 또한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축제를 즐기고 공연관람을 위한 목적이 높게 나타났고,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는 공연관람(34.2%)보다 가족과의 휴가 목적(46.1%)로 더 많은 응답을 보였다. 함께 방문한 동행인은 가족이 60.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동행인

수는 특성에 큰 차이 없이 4명 동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창국제연극제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 분야는 뮤지컬이 33.1%, 순수연극이 27.4%, 야외공연이 16.7%, 창작 초연작품이 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의 조사결과 뮤지컬이 지속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장르로 나타났고, 창작 초연작품과 순수연극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어 연극제의 정체성을 확보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2] 그러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국가 간의 교류확대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해외작품에 대하여는 점차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어 그 원인을 찾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Table 4>와 같다.

방문객이 연극제 기간 동안 관람한 작품 편수는 1편 내지 2편을 관람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이전년도와 비교할 때 1편 관람률이 증가하고, 공연을 보지 않는 경우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창국제연극제를 인지한 경로는 언론이나 유인물을 통해서 33%,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25.1%, 주변의 아는 사람들이 얘기해줘서 23.3%로 나타나 주변의 구전이나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과반수 가까이(48.4%)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년도 60.6%에 비하여 약 12%나 감소하였는데 전년도에 언론이나 유인물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19.7%에 비하여 금년도에는 33%로 약 13% 증가하여 2013년도에 언론의 홍보효과가 전년도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과 매우만족이 69.4%, 불만족과 매우불만족이 5.4%로 나타나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공연작품에 대하여는 74%가 대체로 만족스러웠다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을 포함하면 96%가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행사공간에 대하여는 적절했다는 의견이 64%이고 보통 이상의 의견의 합하면 약 98%로 높게 나타나 야외 공연축제의 현장시설을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75.6%가 재방문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2회 이상 방문객은 52.5%로 나타나 재방문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거창국제연극제가 「예술과 거창지역」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응답이 약 80%로 타 문항보다 높게 나타났고, '거창군민 등 지역민의 예술향수에 기여하고 있다'는 약 69%로 타 문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거주민들과의 교류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Table 5>와 같이 공연예술발전, 거창을 예술의 도시로 이미지화, 거창지역의 경제 활성화, 거창군민 등 지역민의 예술향수, 새로운 예술작품·작가·예술인 발굴 등에 기여하고 있는 등에 대하여 모든 문항이 높은 수준의 반응이 나타났다.

거창군민 등 지역 거주민들의 예술향수 기여에 대한 인식은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p<.01), 직업에 따라서는 예술기획/공간운영자는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100.0%로 타 직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임·농업 종사자는 부정적 응답이 약 25%로 타 직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p<.05). 연극축제가 거창을 예술의 도시로 이미지화 하는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p<.05), 임·농업 종사자는 부정적인 인식이 타 직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p<.001). 거창국제연극제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p<.05),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 인식이 76.5%로 전년도 68.6%보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부정적 인식은 전

년도 4.7%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4.3%)되었다. 학력 차이에 의한 인식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Table 6>과 같이 학력이 낮을수록 기여 인식이 낮게 나타났고 학력이 높을수록 기여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 차이에 의한 기여 인식은 월 100만 원 이상의 계층에서는 긍정 인식이 80%로 높게 나타났으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부정인식 또한 소득이 낮은 계층이 다소 높게 나타나 소득과 학력차이에 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지불의사와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방문객들의 체류기간은 1박 2일이 36.1%로 가장 많았고 당일참여가 24.6% 등 장기체류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체류기간이 짧고 학력이 높을수록 체류기간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체류기간이 짧아 100만 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는 당일 참여가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0-500만원의 소득계층은 2박3일이 36.4%로 가장 높은 만은 비율을 보였으며 <Table 7>과 같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학력과 소득 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학력과 소득에 따라 문화생활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극제 참여를 위해 1인당 지출한 평균 총 비용은 10-30만원이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10만원이 29.7%, 5만 원 이하가 29.2%, 30만 원 이상이 6.4% 순으로 10만 원 이하를 지출했다는 응답이 과반수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지출비용에 있어서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이하가 5만원 미만인 약 40%로 가장 낮고, 대학원 이상은 10-30만원 구간이 43%로 학력이 높을수록 지출비용이

<Table 6> Cognition About the Contribution of the Religion Economic in Disparity of Educational Background

Division	More than Graduate School [㉠]	college [㉡]	Below High school [㉢]
Positive Cognition(%)	91.2	76.6	69.5
Negative Cognition(%)	2.9	2.9	8.3

<Table 7> Cognition About the Contribution of the Resigion Economic in Disparity of Incom

(unit : 10,000 won)

Division	300-500	200-300	100-200	Below 100
Positive Cognition(%)	80.6	81.4	83.7	70.3
Negative Cognition(%)	2.6	2.3	2.3	3.7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에 따른 지출비용은 소득이 많을수록 지출비용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거주 지역에 따른 지출비용은 거창군 거주자, 경북, 대구, 부산 등 근거리 거주자들의 지출비용이 낮은 구간에 있고, 서울경기 등 원거리 거주자들의 지출비용은 10-30만원 구간에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 1인 평균지출액은 2011년도 제23회의 경우 5만 원이하 지출비율이 20.2%에서 제25회는 29.2%로 늘어나 소액지출비율은 증가하고 다액 지출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항목별 지출비용은 숙박비·교통비·식음료비·공연관람료·특산물구입·기타 등 6개의 지출항목 중 숙박비, 교통비, 식, 음료비 순으로 지출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 1인 평균 지출비용은 50,669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7,851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Table 8>과 같다.

<Table 8> Comparison About the Expenditure of Visitor's (unit : 10,000 won)

Division	Below5	5-10	10-30	More than30	Total
25th(%)	29.2	29.7	34.7	6.4	100
24th(%)	26.7	23.5	30.0	19.8	100
23th(%)	20.2	22.2	41.2	16.4	100

4. 분석 결과

4.1 거창연극축제의 인지도

「예술과 거창지역」에 대한 거창국제연극제의 기여 인식은 공연예술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약 80%로 높게 나타났고, '거창군민 등 지역민의 예술향수에 대한 기여 인식은 약 69%의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창을 예술의 도시로 이미지화 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응답이 약 73%로 거창을 이미지 브랜딩 하는데 연극축제가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연예술발전·새로운 예술작품·작가·예술인 발굴과 거창군민 등 지역민의 예술향수, 거창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창국

제연극제가 지역민들의 예술향수, 경제 활성화, 예술발전, 거창 이미지 제고 등에 전반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 인식이 2012년 68.6%→2013년 76.5%로 높아졌고, 부정적 인식은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연극축제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2 경제적 파급효과

본 연구의 직접 경제효과는 집행한 직접비용(Input:국비, 도비, 군비 등 공공채원과 자체 수입)을 투입비용으로 하고, 산출효과(Output)는 입장수입 등 연극제 추진에 따른 수입 총액을 그 산출효과로 하였다. <Table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투입재원은 10억 7천4백만 원이고, 직접효과(산출액)는 1억 2천8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Table 9> Direct Impact in Economic of the 25th Keochang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 (unit : 10,000 won)

Division	Total	Substance	
Input	946,559	National Fund	350,000
		Provincial Fund	313,600
		County Fund	282,959
Output	128,000	Ticket Sales and Other Means	128,000
Output Ratio	13.53%		

또한 경제적 간접유발효과는 방문한 관람객의 1인 평균 소비지출 비용을 산출하고, 여기에 산업연관 표에 의한 관련 승수에 총 관람객 수를 곱하여 생산, 소득, 부가가치, 고용, 수입 및 조세수입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 산식= $\sum(1인\ 평균\ 소비\ 지출액 \times 총\ 관람객수 \times 관련\ 산업\ 유발승수)$ 의 공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방문에 소요된 1인당 평균 소비지출 액은 50,669원으로 전년도 58,520원보다 7,851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의 1인 평균지출액은 우리나라 1인 관광비용 지출액 68,640원보다 적게 소비하는 것(국민여행실태조사, 2008)으로 숙박과 식음료비용의 비중이 큰 관광과의 비용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추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유발계수의 승수는 <Table 10>과 같다.

〈Table 10〉 Economic impact multiplier for calculating induced

Economic Impact	Induced Multiplier
1. Impact of Production	1.692579
2. Impact of Personal income	0.033703
3. Impact of Added-value	0.796734
4. Impact of Job creation	0.042273
5. Impact of Import	0.203266
6. Impact of Taxes	0.082394

한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파급효과 160억 3천8백만 원, 소득파급효과 3억 1천9백만 원, 부가가치 파급효과 75억 4천9백만 원, 수입파급효과 19억 2천6백만 원, 조세파급효과 7억8천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파급효과는 4억여 원으로 약 400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Table 11>과 같이 분석되었다.

4.3 시사점

본 연구는 2013거창연극제의 정책적 연구과제로 교차 분석을 통한 전문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분석과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시사점으로는 국제연극제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방법으로 축제추진위에서 축제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축제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을 자체 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작품의 예술성, 완성도 등 수준작을 선보여야 할 것이다. 해외 작품 선정에 있어서 국제연극제에 걸 맞는 예술성과 완성도 있는 규모의 작품을 초청 공연하여 국제간의 예술교류를 활성화 하고 국내 공연예술계와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 새로운 작품과 작가발굴도 축제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요인인데 이 축제의 프로젝트중 하나인 ‘세계초연 창작희곡’을 메인공연작품으로 제작하여 공연예술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정책적 측면에서는 ‘간섭하지 않되, 축제 성과에 따라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공

연공간에 대하여는 야외공연의 특성을 살리되 시설을 보완하고 메인공연장 건립이 필요하며, 축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 고품격 연극축제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아비농축제의 홍보사무국이 파리에 있듯이 거창국제연극제도 서울의 대학로 등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디지털 정책기반을 갖춘 연중 축제홍보의 필요성도 제기되었고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 인력의 보강도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경제적 파급효과에 있어서 총 투입재원은 10억 7천4백만 원이고, 직접효과(산출액)는 1억 2천8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제25회 거창국제연극제를 통해 유발된 경제적 파급효과(간접효과)는 생산파급효과 160억 3천8백만 원, 소득파급효과 3억 1천9백만 원, 부가가치 파급효과 75억 4천9백만 원, 수입파급효과 19억 2천6백만 원, 조세파급효과 7억 8천만 원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약 400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발전방안으로는 축제를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을 자체 제작하여 연극제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해야 하며, 축제의 기획과 진행 및 서비스 제공 등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연극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해외 초청작품을 예술성, 완성도, 그리고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제규모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작품을 공연해야 한다. 연극축제가 지속발전하기 위한 조건으로 정부 등 공공은 ‘간섭하지 않되 결과에 따라 전폭적 지원’과, 채류형 축제를 위해서는 숙박·교통·식당 등 편의를 위한 서비스 인프라(infra)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대한 대안적인 비교를 통해 실제 예술축제가 우월

〈Table 11〉 Economic Impact of the 25th Keochang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

Impact	Average Expenditures Per Visitor(unit:won)	Total Visitors (people)	Induction Multiplier	Outcome (unit:1000 won)
Production	50,669	187,010	1.692579	16,038,217
Personal income	50,669	187,010	0.033703	319,356
Added-value	50,669	187,010	0.796734	7,549,540
Import	50,669	187,010	0.203266	1,926,069
Taxes	50,669	187,010	0.082394	780,733
Job creation	50,669	187,010	0.042273	400,562 /400people

적 경제효과를 나타내는데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 다양한 이론과 성과를 이루기를 기대한다.

ACKNOWLEDGMENTS

This paper is centered on data released by KIFT and ICDPM2013 was performed.

REFERENCES

- [1] Arts Council Korea ·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2012 Performing arts event promotion of literary arts events funded evaluation report. p.33-35. 2013
- [2] Jong-Won Lee. Study on performance analysis and development of 25th Keochang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er. p. 9-11. 33. 33-35. 2013
- [3] Kyung-Sun Kim. Koo-Won Suh. A Comparison of the Influences of Festival Success Factors According to the Community-based Festival. Korea Design Forum. Vol. 29. 149(20-28). 2010.
- [4] Hye-Won Ahn. Min-Kyu Lee. Study on the Revitalization Plan of Local Festival.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0. 6th. p. 379. 2010.
- [5] <http://www.mcst.go.kr/main.jsp>.2013.10.5
- [6] Sang-oh Lim. Value in Regional Festival and Cultural Policy. Korea Association for Cultural Economics. 2004. Vol. 7. 1st. p. 52. 2004
- [7] Jong-Won Lee. The Economic Impact of the Arts & Culture. Graduate School fo Se Jong University. p. 41. 2010.
- [8] KIET(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A study on the Economic Impact of the Arts & Culture. Vol. 9. p. 108-110. 2006
- [9] Sang-oh Lim. Chel-Ho Shin. Analysis of the valuation of art. The Journal of Management. Vol. 40. p. 253. 2010
- [10] The Bank of Korea. Inter-industry analysis. 2007-2009.

- [11] Kang-Wook Lee. Seung-Mook Choi. An Economic Impact Analysis of Regional Tourism Industry.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p.53-58. 2003.
- [12] William J. Baumol · William G. Bowen. Performing Arts-The Economic Delemma : A Study of Problems Comon to Theater, Opera, Music and Dance, The Twentieth Century Fund, 1966

이 종 원(Jong-Won Lee)



- 2005년 2월 : 경희대학교(예술경영학석사)
- 2010년 2월 : 세종대학교(공연예술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세종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초빙교수
- 관심분야 : 극장경영, 예술정책, 예술성과

· E-Mail : leejw2007@sejong.ac.kr

박 정 배(Jeong-Bae Park)



- 2001년 8월 : 중앙대학교(예술경영학석사)
- 2009년 2월 : 성균관대학교(공연예술학박사)
- 2012년 9월~현재 : 한국이벤트컨벤션학회 회장
- 2004년 3월~현재 : 청운대학교 공연기획경영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공연기획, 이벤트, 예술경영

· E-Mail : pjb@chungwoon.ac.kr